



도전! 한국문화 골든벨
고 게임을 즐겼다.

전남농협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는 9일 나주시 남평읍 중흥골드스파&리조트 대공연장에서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한국문화 도전! 골든벨'대회를 열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다문화 가족 150여명이 참가해 퀴즈를 함께 풀고 게임을 즐겼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자동차 개방 확대... 쇠고기 시장은 고수

한미 FTA 재협상의 사실상 타결...양국 수뇌부 최종 결심만 남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한미간 협의가 9일 사실상 종료됐으며 양국 정부 최고수뇌부의 최종 결심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오는 11일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한미 FTA 논의를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해왔다는 점에서 양측이 협상대표 선에서는 일단 합의에 도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번 FTA 논의는 미국의 요구로 시작됐고 한국은 수세적 입장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미국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했다는 점에서 협의 결과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력하기로 하는 등 국내 비준절차를 빠른 시일내 완료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가 진전이 있을 경우 내년 초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관련 법률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양측이 FTA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마쳤다고 상대국에 통보하면 한미 FTA는 60일후에 발효될 게 돼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한미 FTA가 정식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논의에서 미국이 강력히 요구했던 쇠고기 수입개방 확대를 막았고, 자동차 관련 내용도 '일방적 양보'라

기보다는 '조정'이라고 규정하며 선방한 협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톤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통상장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한국의 자동차 안전·연비·온실가스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한국은 오는 2015년부터 현재 15km/ℓ 인 연비를 17km/ℓ 로, 온실가스 배출량도 현재 159g/km에서 140g/km로 강화할 방침이며 향후 3년간 판매대수 1000대 미만에 대해서만 이를 예외로 인정한다는 입장이었다. 미국은 연간 판매

량 1만대 이하에 대해서만 이에 이를 적용하지 말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일각에선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임으로써 앞서 체결한 한미 FTA에서 이뤄진 '이익의 균형'이 훼손된 '불만족스러운 협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재협상은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의한 일방적 양보 뿐인 굴욕적 재협상, 마이너스 재협상"이라며 "이런 조건에서는 비준은 말할 것도 없고 한미 FTA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민주 "자동차 양보엔 비준 거부" 한나라 "밀실·졸속협상 아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사안에 대한 협상 타결이 임박한 가운데 여야는 9일 협상 진행 상황을 놓고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야당은 "밀실협상에 일방적인 양보에 그치고 있다"며 한미 FTA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지만 여당은 "밀실·졸속협상은 아니다"며 정부를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 FTA 비준안 국회 처리를 여야 간 치열한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일단 이번 FTA 추가 협의에

서 정부가 '자동차 안전 및 연비·환경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할 경우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을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부르짖으면서 모범은 보이지 않고 야당에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미관계를 불공정교로 가면서 너무나 많은 패주기식 양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외에 자유선진당을 포함한 다른 야당들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이미 8일부터 4일 간 일정으로 '한미 FTA 밀실협상 반대'를 위한 철야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고홍길 정책위의장은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타결이 어떻게 될지 가능할 수 없지만 쇠고기 문제는 협의를 안 하고 있고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에 대한 양국간 협의도 신중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밀실협상, 패주기 협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내년 5월 광주서 세계인권도시포럼 광주교도소 부지 민주인권센터 설립"

강운태 시장 시정연설

광주시가 내년 5·18 31주년 기념기간 중 세계인권도시 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 세계 80여개국의 인권 관련 저명인사와 국내 인권 관련 기관·단체 대표를 초빙해 3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 포럼으로 광주가 국제인권도시로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9일 광주시의회 제193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내년에는 세계적인 인권도시로 150여명이 참여하는 '세계인권도시 포럼'을 개최해 인권도시로서 주도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포럼은 5·18 31주년인 내년 5월17~2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강 시장은 또 국내 최초로 인권지수를 개발해 내년 포럼 기간에 '광주인권지수헌장' 선포식을 개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아울러 오는 2014년 이전에는 광주교도소부지는 민주인권평화센터 및 공원으로 만들고, 광주가톨릭센터를 매입해 '인권교류 및 트라우마센터'로 조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 시장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민선 5기 들어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및 사업의 방향 및 주요 내



용을 의원들에게 일일이 설명하고 협조와 동참을 부탁했다. 내년에 창조도시의 성공을 가능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시의회에 '솔직한 구애'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 밖에도 강 시장은 '참여와 소통의 자치공동체'를 위한 내년도 주요 시책으로 ▲광주공동체 원탁회의 운영과 시민참여조례 제정 ▲시민이 주도하는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하도급업체 보호조례 제정 등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 등을 꼽았다. 강 시장은 "이를 정책은 시민들의 깊은 이해와 함께 자발적인 참여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풍요로운 경제공동체" 관련 시책으로는 ▲LED 조명 실증단지 및 발전로봇지원센터 개원 ▲문화산업 육성 ▲하이테크 급형 체계 구축 ▲민간·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등을 들었다. "멋져진 문화공동체"를 위해 옛 전남도청 별관 논란을 조기에 매듭짓고 '광주문화재단'을 내년 초 설립하는 것은 물론 증심사지구를 '문화·예술관광촌'으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U대회 선수촌 차질·야구장 건립 혼선"

윤봉근 시의회 의장 광주시정 정면비판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이 9일 시의회 개회사를 통해 광주시 행정의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윤 의장은 이날 열린 제19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사에서 "강운태 광주시장이 해외 투자유치 활동과 국비확보 분야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지만,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업과 정책들이 시장의 의욕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장은 ▲U대회 선수촌 건립 개발사업 차질 ▲지치부진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도청별관 문제 난항 ▲야구장 건립 국비지원 혼선 ▲개방형 공모제인 인권담당관 미채용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윤 의장은 이어 "시장의 여러 분야에서 부정적인 면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도시공사의 각종 비위 문제나 광주시체육회 승부조작 의혹, 광주시정립선생원 민간위탁의 제도적 허점 등이 대표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의 낮은 경영평가 문제와 차량견인 대행업체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등도 열거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 철저히 점검해



잘못된 정책과 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장의 이날 개회사 발언을 놓고 10일부터 본격화되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앞두고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는 견해와 강운태 시장이 이끄는 광주시 행정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시의회와 시청 안팎에서는 윤 의장의 이날 개회사에 대해 확대 해석을 경계하며, 시의회의 발언의 역할인 집행부 감시·견제 기능을 충실히 하자는 의례적인 발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강운태 광주시장은 애초 시정연설 문안에도 없었던 내용을 언급하며 윤 의장의 지적을 반박했다. 강 시장은 "U대회 선수촌 건립은 일부 대기업이 사업참여를 포기했지만 제2, 제3의 기업들이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어 아무런 문제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 시장은 또 야구장 건립 국비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스포츠토토 재원을 3만억 규모의 광주야구장 건립에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현지 학생들과 수업하며 생생영어 배워요 새롭다, 즐겁다, 뉴질랜드 어학연수

광주일보가 뉴질랜드 어학연수 전문기관인 뉴질랜드교육문화원(NZLES:NewZealand Life Education Service, www.nzles.com)과 공동으로 현지학생들과 수업을 받는 정통 영어 어학연수를 실시합니다.

- 특징 1** 현지학교 매일 수업참여
기존 '해외외형' 연수가 아닌, 새하기를 시작하는 뉴질랜드 학생들과 현지학교 교실에서 연수기간 내내 정규수업을 받으면서 영어실력을 키운다. 연수생의 어학수준에 맞게 학년을 배치하며 오전엔 별도 영어교육도 실시한다.
- 특징 2** 학생 집에서 매일 홈스테이
연수생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현지 학생들의 집을 선별해 연수기간 내내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홈스테이를 갖는다. 교사가 주 1회 가정방문해 학생의 생활상황도 체크한다.
- 특징 3** 연수생 인건에 민선
홈스테이 전담 선생님이 있어 연수생들이 현지 생활에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24시간 학생보호 시스템을 운영한다. 현지 학교 교직원과 NZLES 교직원 학교에 상주하면서 연수생들의 학교생활을 밀착 관리한다.

연수기간 | 2011년 1월 30일 ~ 2월 26일
연수지역 | 오클랜드 북부 Whangaparaoa
연수학교 | StanmoreBay School (www.stanmore.school.nz)
GulfHarbourSchool (www.gulpharbour.school.nz)
연수대상 | 초등 4~6학년, 중학생 1~3학년
연수인원 | 선착순 60명(심층면접후 실력고려 학년 배치)
신청마감 | 2010년 12월 10일
문의 | 062-220-0641
주최 | 광주일보사 | 주관 | NZLES·AK WORLDLINE